

# 17세기 조선 경학의 내면으로의 관심 전환

— 창계 임영(1649~1696)의 경우

함영대 \*\*

- 
1. 문제제기
  2. 아내 행장에 나타난 인간에 대한 성찰
  3. 경연록의 실질에 대한 관점
  4. 독서차록 - 맹자의 경우
  5. 학문적 기초와 그 저변
  6. 남는 문제
- 

## ■ 국문요약

이 논문은 창계 임영의 경전주석의 관심사를 고찰한 것이다. 17세기 진행되고 있던 조선 경학자들의 관심사의 전환과 그 경학사적 의의를 검토하려는 시도이다. 창계 임영은 실천의 독실함과 이론의 적실성에서 17세기 주목할 만한 조선 주자학자이다.

검토한 결과 그는 주자학적인 공부를 심화시켜 일상의 삶 속에서 절절하게 실천하려고 했는데 이는 그 삶의 기본적인 태도와 진지한 학구적 노력의 실질적인 결산이었다. 내면에서의 각성과 실천을 중시한 이러한 학문적 문제의식의 경사는 17세기 당시 만회 권득기나 포저 조익의 경우에도 잘 나타나는 시대적인 특질점이 있다. 광해군과 인조의 시기를 지나면서 겪게 되는 정치적 파동과 주자학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는 이러한 학문적 방향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

\* 경상국립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E-mail: ydham@gnu.ac.kr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변인은 역시 주석자 개인의 자의식의 심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그것을 17세기 조선 학자들의 학문적 문제의식이 내면으로 전환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했다.

실질과 절목을 의식한 창계 임영의 학자적 시선은 임진왜란(1592~1597), 정묘호란(1627), 병자호란(1636)으로 이어지는 당대 상황에 비추어 정밀하게 반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기에 만회 권득기, 포저 조익, 서계 박세당 등은 경전의 해석에서 일반적인 관념론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측면에서의 논리적 진전을 이룩했는데 창계의 경우, 논리적 진전에 그치지 않고 마음의 도야라는 측면에서 더욱 진전된 성과를 보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텍스트의 교조화에 좀 더 치력했던 잠야 박지계나 우암 송시열의 경로와는 변별되는 것이다.

창계의 내면적 성찰의 경우, 구조의 재확인과 강조의 일면과 실용과 효용, 효과의 중시 측면으로의 진전이 있다. 창계의 경우 심법心法과 사공事功의 구분법과 그 융합적 지향으로서의 타개책을 모색하고 있는 국면을 보여주는 데 이는 조선 주자학의 진행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지점이다

**주제어** : 17세기 조선, 창계 임영, 내면으로의 경사, 주석자의 태도, 심법과 사공

## 1. 문제제기

창계 임영의 경전주석에 대한 그 안팎의 고찰을 통해 16-17세기 진행되고 있는 조선 경학의 향방과 그 경학사적 의의를 검토하려는 시도이다. 창계 임영은 17세기 조선 경학사에서 매우 높은 성취를 보여주는 인물인데 하나는 실천의 측면에서 하나는 이론의 적실성에서 그러하다.<sup>1)</sup>

---

1) 함영대(2019), 「창계 임영의 내면적 성찰과 경학 - 『일록』과 『독서차록-맹자』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7, 한국실학학회 참조.

여기에서는 우선 그의 문장들을 중심으로 16-17세기 주자학자의 위상을 가진 학자가 자신의 학문에 대해 어떠한 정체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어떠한 자의식을 바탕으로 전개되는지에 대한 검토이다. 사실 이러한 학문적 문제의식의 내면으로의 경사는 창계 임영뿐만이 아니라 만회 권득기나 포저 조익의 경우<sup>2)</sup>에도 적지 않게 나타나는 것이다. 광해군과 인조의 시기를 지나면서 겪게 되는 정치적 파동과 주자학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는 이러한 학문적 방향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인은 역시 주석자의 자의식의 심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이 글에서는 그것을 17세기 조선 학자들의 학문적 문제의식이 내면으로 전환되는 측면의 저변을 검토해 보려 한다.

## 2. 아내 행장에 나타난 인간에 대한 성찰

부부가 만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중용』의 가르침이고, 퇴계 이황도 자신의 손자에게 부부가 만복의 근원이라고 설교하였으며<sup>3)</sup>, 실제로 부부생활의 곡절을 드러내는 글들이 적지 않지만 여전히 아내에 대한 감정을 드러낸 글은 엄격한 유교사회의 분위기에서 쉽게 찾아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간결하지만 아내의 인간적인 면모에 대해 그 절절함을 드러낸 아내에 대한 행장은 유심히 살펴볼 만하다.

2) 만회 권득기의 경우에는 자신의 옳음과 남에 대한 비판의 정당성을 토론한 내용이 있고, 포저 조익의 경우, 持敬說 등을 비롯하여 마음의 경건함과 평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부단하게 진행하였다. 관련해서는 함영대(2017), 「만회 권득기의 학술정신과 맹자참의」, 『한국사상사학』 55, 한국사상사학회; 함영대(2008), 「포저 조익의 학문관과 경학」, 『동방한문학』 34, 동방한문학회 참조.

3) 함영대(2022), 「부부는 인류의 시작이고 만복의 근원이다」, 『퇴계학 아카데미』 봄강연 3(<https://www.youtube.com/watch?v=TuzKrnX2Xfo>)

안인은 崇禎 후 신묘년(1651, 효종2) 8월 15일에 태어나서 갑인년(1674, 현종15) 2월 3일에 세상을 떠났으니, 겨우 24년을 살았다. 일찍이 아들 하나를 낳았으나 일찍 죽었고, 세상을 떠나기 2일 전에 딸을 낳았으나 또 바로 죽었으니, 이 때문에 마침내 자식이 없게 되었다. 병이 위독해졌을 때에 향리에 전답을 팔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남편에게 말하기를 “어찌 그 전답을 사서 당신의 뜻을 이루지 않으십니까.”라고 하였으니, 그 마음이 이 일에 간절하였음을 볼 수 있다. 임종하려 할 때에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를 오시라고 해서 양쪽으로 손을 잡고 종일토록 잠시도 놓지 않았다.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갚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 잊지 않으신다면 원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를 돌보아 주시는 것뿐입니다.”라고 하였다. 또 그 친정어머니를 돌아보고 말하기를 “누군들 죽지 않았습니까마는 나의 죽음이 가장 슬픍니다. 우리 어머니가 더욱 의지할 데가 없게 되었으니 어찌면 좋습니까. 어찌하여 우리 어머니의 운명이 한결같이 이런 지경에 이른단 말입니까.”라고 하였다. 또 그 남편을 불러서 앞으로 오라고 하고서 말하기를 “내가 죽더라도 당신은 우리 어머니를 잊지 마십시오.”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만난 지 10년 만에 부부의 의가 끝날 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본래 당신과 시골에서 함께 살고 싶었는데 어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고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니 사람들이 모두 참담하여 차마 보지 못하였다. 자주 시각이 얼마나 되었는지 묻고 말하기를 “내 기력으로 보아 필시 오늘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숨이 끊어지려고 할 때에도 오히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러나 쉬라고 권하였고,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났다.<sup>4)</sup>

4) 『滄溪集』 卷17, 「亡室安人曹氏行狀」 安人生於崇禎後辛卯八月十五日, 歿以甲寅二月三日, 得年僅二十四。嘗生一男, 不育, 前死之二日生女, 又即死, 以此遂無後。病既甦, 聞鄉里有賣田者, 謂其夫曰: “何不遂買, 以成君志?” 蓋其心之拳拳於此者可見矣。臨且死, 請其姑若母, 左右執手, 終日不暫舍, 泣而謂其姑曰: “未報憐愛之恩, 而今日死矣。姑若憐我, 不忘, 但願軫恤吾母而已。” 又顧其母曰: “人孰無死, 我死最悲。奈吾母益無依何? 何吾母命道一至此耶?” 又呼其夫, 使前, 曰: “我死, 君其勿忘吾母。” 又曰: “不意相遇十年, 乃竟義終。本欲與君共居鄉曲, 詎可得耶?” 仍涕下不止, 衆皆慘然不忍視。數問時刻如何曰: “吾氣力必不過今日。” 垂絕時, 猶勉傍人退休, 俄頃而逝。

이 글은 창계 임영이 자신의 아내를 추억하는 방식이 잘 나타나 있다. 죽음에 임박하여 자신의 아내가 어떠한 부탁의 말을 하는지에 집중하여 아내의 성품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그에 앞서 자녀를 낳았으나 역시 일찍 잃고 말아 후손마저 없는 상황을 어떠한 형용사 없이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는 지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에피소드 다음에 서술한 내용은 창계에게 아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증언한다.

그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고 은혜로운 뜻이 각각 극진한 것이 이와 같았고, 염습(殮襲)의 일에 대해 분부한 것이 매우 상세하였다. 목숨이 간당간당하여 끊어지려고 하는 때에 겨우 애써 소리를 냈는데도 한 말이 조금도 흐트러지거나 빠뜨린 것이 없이 모두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었으니, 슬프다. 죽음에 임하여 뜻이 어지럽지 않은 것은 장부라도 어렵게 여기는 것이다.<sup>5)</sup>

자신이 가고 나면 이제 의지할 곳을 잃어버릴 어머니에 대한 유언은 어떠한 슬픔보다도 진한 슬픔으로 받아들여지며, 아울러 온당한 칭송과 사람으로 느껴진다. 이러한 서술이 가능한 것은 집필자의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젊은 시절부터 삶의 간난을 경험한 창계의 생의 여정은 그의 눈매를 깊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 3. 경연록의 실질에 대한 관점

창계의 경연록 역시 그의 예리한 문제의식이 잘 드러난다. 그는 역사서를 읽을 때에 치란의 계기를 잘 살펴야 하며 그 원인을 반드시 찾아내

---

5) 앞의 글, “其精神之不爽, 恩意之各盡, 有如此者, 分付襲斂諸事甚詳悉. 當奄奄就盡之際, 廬廬自力出聲, 而所言無少錯遺, 皆可按行. 嗟乎! 臨死而志不亂, 雖丈夫或難之矣”

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 자세한 절목을 검토해야 한다는 매우 진지하고 구체적인 접근을 모색했다.

역사서를 읽는 방법은 治亂의 계기를 살펴서 그 원인을 알아내서 감계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進講한 대목으로 말하면, 이 부분이 바로 오초칠국의 난이 처음 평정된 대목으로 한나라 때에 발생한 대단히 큰 난이었습니다. 한나라 초기에는 呂氏들의 내란이 있었고, 그 후로는 오초칠국의 난이 가장 큰 난입니다. 지금 의당 그 자취를 상세히 살펴서 성패의 이유를 알아야 하지, 지난 자취를 범범하게 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 감계로 삼는 법에도 많은 절목이 있으니, 신이 감히 다시 상세히 진달하겠습니다. 지금 한나라의 일로 말하면 한 왕조의 규모가 있으니, 高帝가 번다하고 가혹한 법령을 폐지하고 관대한 제도를 수립한 것이 바로 한 왕조의 규모에 해당합니다. 한 임금의 규모가 있으니, 고제의 관대함, 文帝와 景帝의 仁厚함, 武帝가 많은 일을 해낸 것이 바로 한 임금의 규모입니다.<sup>6)</sup>

원인에 대한 탐색에서 그는 자취를 볼 것이 아니라 성패의 이유 따져야 하며 귀감이 될 만한 경계의 절목을 깊이 있게 논했다. 이는 반계 유형원(1622~1673)이 『반계수록』에서 유학적 이상의 실현이 진척되지 못한 것이 바로 '節目'에 대해 무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던 것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반계의 절목에 대해 일찍이 홍계희는 이렇게 평가한 바 있다.

---

6) 『滄溪集』 卷18, “讀史之法, 當觀治亂機柝, 識其所由然而鑑戒之。以今日所進講處言之, 此乃吳楚七國之難初平處, 此乃漢時莫大之亂。蓋漢初卽有諸呂內難, 其後則吳、楚之難最大, 今當詳考其跡, 而識其所以成敗之理, 不可徒觀其已然之跡而已。…… “鑑戒之法, 亦多有節目, 臣敢復詳達。今以漢事言之, 有一代之規模, 如高帝掃除繁苛, 建立寬大制度, 是一代之規模也。有一君之規模, 如高帝之恢廓, 文、景之仁厚, 武帝之多事, 是一君之規模也。”

세상의 유자들에게 대체를 논하라고 하면 화려하고 아름답지 않은 경우가 없지만, 그 일을 실제로 거행하도록 하면 처음부터 멍해지지 않는 자가 드물며 결국 시행한다는 것도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대략 대체는 알고서 조리에 밝지 못한 과오에 원인이 있다. 참으로 이와 같다면 선왕의 도는 끝내 행해질 날이 없고 만년이 가도록 캄캄한 밤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형원이 크게 두려워하여 이 책을 짓게 된 까닭이다. 『수록』에서 세운 조례가 비록 모두 다 요순과 하은주 삼대의 세상을 다스리는 절목과 꼭 합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체를 벗어나서 그 절목의 상세한 것을 찾자 한다면 이 책과 같은 것이 없을 것이다.<sup>7)</sup>

#### 4. 『독서차록』의 경우

창계는 경전의 독서에 있어 만물의 유기적 이해에 좀 더 치밀하게 접근했다. 이러한 침중한 관점은 상당히 신선한 논리의 구축을 보여준다.

그는 논어의 해석에 있어서 중시되는 ‘敬’의 해석에 있어서 내면 수양에만 그치지 않고 외면도 아우른다고 한 바 있다. 그는 “모든 일에 조심스럽게 삼가고 신중하며 도리를 다하는 것에 힘쓰는 것<sup>8)</sup>이다. 하나의 일에도 이치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경으로써 그 일을 수행하며 이치를 온전히 다 발휘하도록 힘쓰게 되고, 이 과정에서 터득한 이치는 다시 실천의 지침이 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치를 밝히는 일이 오롯이 개인의 실천에만 의지할 수는 없는 만큼 실천 과정에서 이치를 터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창계는 이에 대하여 일을 수행하면서 “[이치를]

7) 洪啓禧, 『磻溪隨錄』 「柳馨遠傳」(『반계유고』 663~664면) “使世之儒者論說大體, 則非不燁然美矣, 而若令舉行其事, 則鮮不到頭茫然, 畢竟行之者, 不過沿襲之謬例. 此由於略知大體, 而不明條理之過也. 苟如是而已, 則先王之道, 終無可行之日, 而萬世長夜矣. 此馨遠之所大懼, 而爲此書者也. 其所條例, 雖未必其悉合於唐虞三代爲治之節目, 而若於大體之外, 欲求其節目之詳, 則未有如此書者.”

8) 林泳, 『滄溪集』 卷21, 讀書箴錄-論語 凡事小心謹慎, 務盡道理, 乃所.

밝히지 못했다면 옛것을 살피고 두루 물어서 일에 앞서 미리 익혀야만 하고 그쳐서는 안 된다.”<sup>9)</sup>라고 주장하여 그 일의 관념적인 해석에 머무르지 않고 좀 더 실질적인 사태의 검토를 주문했다.<sup>10)</sup>

이러한 치밀한 사태본연의 면모 파악에 대한 접근은 경전의 해석에도 관철되었다. 그는 맹자의 해석에서 기존의 해석과는 그 의미를 많이 다르게 접근한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제2장의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 한다.[與民同樂]”는 것은 누대나 연못, 새나 짐승들을 가지고 추구해서는 안 된다. 평소 정사를 잘 행하고 인덕을 베풀어 백성들이 각자 그 즐거움을 얻게 한 것이 본래 누대를 건설하기 위해 측량하고 시공하기 전에 있었다. 그러므로 백성들도 문왕이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문왕은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sup>11)</sup>

이 단락의 이해에서 창계는 문왕의 여민동락한 상황이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배경을 탐색했다. ‘백성과 함께 즐긴다’는 논점에 대한 해명에 가까웠던 맹자의 본문 설명에 그치지 않고 맹자는 그 상황이 지닌 의미를 더 밀고 나갔던 것이다. 창계는 평소의 어진 정치로 인해 이미 누대를 건설하기 전부터 문왕은 여민동락의 상황을 누리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평가는 이전의 주석에서는 찾기 어려운 매우 독창적인 부분으로 정황의 전모를 파악해 내는 창계의 시선이 매우 날카로움을 보여준다.

9) 林泳, 『滄溪集』 卷21, 讀書筭錄-論語 若未明焉, 則當稽古博詢, 先事預講, 不容但已.  
 10) 창계의 논어차록과 관련해서는 조정은(2019), 「창계 임영의 개인 수양서로서의 『논어』 읽기」, 『한국실학연구』 37, 한국실학학회 참조.  
 11) 林泳, 『滄溪集』 卷22, 「讀書筭錄-孟子」 “第二章, 與民同樂, 不可就臺池鳥獸上求, 蓋平日發政施仁, 使民各得其樂者, 固已在經始之前矣. 是以民亦樂文王之樂, 而文王得享其樂也.”

한편 그의 理氣에 대한 변론은 매우 흥미로운 국면을 보여준다. 그는 기본적으로 理의 권능에 대한 이해와 준칙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sup>12)</sup> 그렇지만 세상의 유행과 변화는 기의 산물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사람이 배울 것은 心과 理뿐이다. 이치를 궁구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마음과 이치가 하나가 된다면 다시는 할 것이 없다. 그러나 또 氣가 그 가운데 있으니, 반드시 기를 완전하게 기를 뒤에야 마음이 성대해지고 이치에 통달하게 된다. 만약 기가 충만하고 완전하지 못하면 선한 마음이 갖추어져 있더라도 그 이치의 활용이 지극할 수 없다. 기가 완전하기만 하면 이치가 미치는 곳에 기가 도달하지 않음이 없다. 인이 지극하고 의가 극진하려면 반드시 이 기를 얻어 도움을 받은 뒤라야 가능하다.

사람이 만약 인의를 배워 의가 정밀하고 인이 익숙한 경지에 도달하면 기는 저절로 생긴다. 그러나 정밀하고 익숙해지기 전에 또 이 뜻을 체득할 수 있다면 실로 정밀하고 익숙하게 되는 데 하나의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테면 사람이 강하고 꺾꽂할[發強剛毅] 수 없는 것이 진실로 곧 기가 불완전해서이지만, 이를테면 너그럽고 온유할[寬裕溫柔] 수 없는 것도 역시 바로 기가 불완전해서이다.

사람은 모두 강하고 꺾꽂한 것이 바로 기라는 것은 알지만 너그럽고 온유한 것도 바로 기라는 것은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광대함을 이루는 것[致廣大]이 기를 바탕으로 하는 줄은 알지만 정미함을 다하는 것[盡精微]도 기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 맹자가 이 기를 '浩然'이라고 이름 붙였고, 주자가 '호연'을 풀이하면서 '성대하게 유행하는 모양[盛大流行之貌]'이라고 하였는데, 성대하면 천지에 가득 차며 유행하면 고금을 꿰뚫어 통하니 이는 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이다.<sup>13)</sup>

12) 창계는 『일록』의 四七理氣에 대한 논의에서 선악이 모두 氣發理乘이라고 한다면 理가 방향성이 없는 공허한 無主宰가 되어 성현이 전수한 純粹至善之理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悖理者和 順理者를 氣發理乘으로 혼칭할 수 없음을 역설했다. 이로 인해 율곡을 계승한 외암 이간은 창계를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우성(2015, 43면)의 논의가 참고가 된다.

13) 앞의 글, “人之爲學, 心與理而已. 窮理正心, 心與理一, 則更無事矣. 然又有氣在其中, 必須養得氣完, 然後心盛而理達矣. 若氣未充完, 善心雖具, 不能極其理之用, 惟氣完則

창계는 사람이 배울 것은心和理일 뿐이지만 “반드시 氣를 완전하게 기른 뒤에야 마음이 성대해지고 이치에 통달하게 된다.”고 이해한다. 무엇을 수양할 것인가에 대한 창계의 추구일 것이다. 그는“氣가 충만하고 완전하지 못하면 선한 마음이 갖추어져 있더라도 그 이치의 활용이 지극할 수 없다”고 여겼으므로 반드시“仁이 지극하고 의가 극진하려면 반드시 이 기를 얻어 도움을 받은 뒤라야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인의’라는 이치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동력이 무엇인가를 고심했던 것이다.

이러한 고심은 창계로 하여금 동정의 상태를 온전히 유지하면서 끊임 없이 반성하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였는데 그것은 윤증에게 이렇게 토로하는 방법론으로 귀결되었다.

존장께서 말씀해 주신 謹獨의 뜻은 본래 절실하고 중요한 공부이니 일찍부터 유념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또한 중단하는 일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깊이 생각하여 한 가지 방안을 얻었습니다. 대체로 중단하는 병통을 치료하는 방법은 오직 專一함을 익히는 데에 있습니다. 전일함을 익히는 방법은 어렵듯한 마음을 익히는 것이 근거할 것이 있고 성취하기 쉬운 신체를 익히는 것만 못하고, 신체의 전체를 익히는 것이 또 더욱 전일하게 할 수 있고 성취하기 쉬운 신체의 일부를 익히는 것만 못합니다. 곧 머리의 용모에 나아가 공부를 하여 다니거나 머물 때, 앉아있고 누워있을 때와 아침과 저녁, 잠자거나 깨어 있을 때에 우선 감히 잠시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고수하여 조금 성숙해지면 또 다른 곳에 나아가 공부를 한다면 거의 습관이 전일하게 될 수 있고, 평소 중단하고 해이해지는 습관도 차례대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방법이 매우 졸렬하고 천근하지만 스스로

---

理之所及，氣無不到，仁至義盡，必得此爲助而後能之耳。人若學爲仁義，到義精仁熟則氣自然生矣。然未至精熟之前，又能體得此意，實爲精熟之一助，如人之不能發強剛毅，固是氣不完，如不能寬裕溫柔，亦是氣不完，人皆知發強剛毅是氣，而不能知寬裕溫柔亦是氣，人知致廣大之資乎氣，而不能知盡精微亦資乎氣，孟子命此氣曰浩然，朱子釋浩然曰盛大流行之貌，盛大則充塞天地，流行則貫徹古今，蓋與道爲體者也。”

생각전대 이것만은 근근이 힘써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下策을 낸 것이니 어쩔지 모르겠습니다.<sup>14)</sup>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창계는 애초 창계는 자신의 본심을 찾아가는 공부에 있어 ‘七省例’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칠성례는 아침 식사 전, 아침 먹을 때, 아침 먹은 뒤, 정오, 저녁 먹을 때, 저녁 먹은 뒤, 침소에 든 뒤, 이렇게 하루에 일곱 번씩, 四箴과 敬齋箴, 그리고 직접 뽑은 격언들을 외우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공부법이다.<sup>15)</sup> 이념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에서의 실현, 이것이 창계가 공부하는 참된 이유였던 것이다.

한편 창계는 당대를 살아가는 유학자의 인간자세에 대해 매우 곡진한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맹자는 일찍이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도통의 전수라는 측면에서 논의한 적이 있는데 이는 한편으로 공자를 계승한 맹자의 시대에 대한 자임의식이었다. 맹자는 이 점에 호응하여 곡진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나를 버려두고 그 누구이겠는가.〔當今之世 舍我其誰〕

대개 하늘이 아직 태평하고 잘 다스려지도록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맹자를 내버려 두어 당시 세상에서 불우하게 하였던 것이니, 맹자가 불

14) 林泳, 『滄溪集』卷9, 答尹明齋 己未. “若尊諱謹獨之義, 自是切要之功, 非不嘗留意也, 但亦無如其間斷何? 還家深念, 得一方便, 大抵治間斷之病, 推在於習專一, 而習專一之法, 其習之於心意恍惚之間, 不如習之於外體之有據而易守, 習之於外體之全, 又不如習之於一體之尤專而易成. 卽就頭容加工, 行住坐臥, 晝夜寢覺, 姑不敢有頃刻遺忘, 如此持守, 覺稍成熟, 又就他處加工, 庶幾可以習成專一, 而平昔間斷放倒之習, 亦可次第減損. 此法至拙至近, 而自量惟此輩可勉成. 故出此下計, 未知如何?”

15) 林泳, 『滄溪集』卷25, 「日錄丙午」 “初起, 誦四箴敬齋箴與手所抄諸格言, 臨食如之, 食後午時, 臨夕食, 夕食後, 臨臥, 又如之, 名曰七省例.” 창계의 자기 성찰의 고투에 대한 연구는 이영호(2020), 「참계 임영의 因文入道論 고찰」, 『민족문화』 56, 한국고전번역원 참조.

우했다면 이를 통해 하늘의 뜻을 알 수가 있다. 하늘의 뜻이 이미 그렇다면 맹자가 또한 어찌 기쁘지 않았겠는가? 세상의 도가 다스러지거나 어지러워지는 것은 하늘이 하는 것이다. 성현이 세상을 구원하고 도를 행하는 데 급급하더라도 만나는 상황에 따라 천명을 즐겨워하지 않은 적이 없다. 이는 단정 짓는 말이다. 만약 하늘의 뜻을 알 수 없고 그 도구가 또 나에게 있으므로 거의 한번 실행될 수 있기를 반드시 기대한 뒤에야 바야흐로 기뻐하지 않음이 없게 된다면, 만약 하늘의 뜻을 알 수 있고 '내가 그만이구나'하는 때에 이르게 되어서는 결국 반드시 기뻐하지 않을 것이니 어찌 이른바 '천명을 즐겨워하는 자'이겠는가?<sup>16)</sup>

창계는 천하의 치란은 하늘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시대의 일치일란은 한 개인의 힘으로 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설사 그것이 맹자와 같은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공자가 그러했듯이 그 혼자만의 힘으로는 변화시키기 어려운 것이라 여겼으리라. 하지만 창계는 천명을 즐겨워해야 하는 이유는 반드시 그 좋은 것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직시했다. 그는 성현이 만나는 상황에 따라 늘 천명을 기뻐했으며 그것은 만나는 때에 따라 급급한 자신의 상황과는 별도로 그러한 마음을 견지했다고 파악했다.

이러한 자세는 당대의 책임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自任意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생각은 당대의 경술을 통해 시대의 보익을 추구했던 포저 조익이나 서계 박세당에게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박세당의 경우는 군자의 憂世意識을 짚기도 했다.<sup>17)</sup> 그러나 창계의

16) 林泳, 『滄溪集』卷22, 「讀書箚錄-孟子」, “當今之世, 舍我其誰. 蓋天未欲平治, 故舍孟子, 使不遇於世, 孟子不遇, 則天意可知. 天意既然, 則孟子亦何爲不豫哉. 蓋世道治亂天也, 聖賢雖汲汲於救世行道, 亦未嘗不隨遇而樂天也. 蓋乃斷置之言, 若必待, 天意未可知. 其具又在我, 庶幾其一行而後, 方無不豫, 則若到天意可知, 吾已矣之時, 終必不豫矣, 豈所謂樂天者哉.

17) 趙翼, 『孟子淺說』「公孫丑下」13章 “此章又以名世自任, 蓋天之生聖賢, 非使自有餘而

경우는 천명과 그 이루어진 역사에 대한 인식이 깊고 시대에 처하는 인간의 자세로서 더욱 곡진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나아가 창계는 빈부귀천의 추구하고 인의예지의 실천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처세를 비판하고 좀 더 인간세상의 실상에 나아가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개 ‘命’이란 한 글자는 바로 귀천과 빈부를 판단하는 公案이고, 부귀를 추구하는 데는 도가 있다는 것은 바로 중간에 또 나름대로 다시 曲折이 있다. 오늘날 사람은 부귀와 빈천이 자기 신상에 利害가 절실한 것을 보고 그만 나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여기고, 성현의 덕업이 숭고한 것을 보고는 이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미치지 못할 바라고 여겨, 자신과는 천만리 멀리 있는 것처럼 여길 뿐만이 아니니 이는 매우 미혹된 것이다.

부귀와 빈천이 내 몸에 아무리 절실하다 해도 실로 내 마음대로 취하기 어렵다면 이는 내 능력 밖에 있는 것이고 본래 내게 속한 것이 아니며, 仁義禮智가 물욕에 가려 본래 없던 것 같으나 생각을 한 번 뉘우치게 되면 모두가 인의예지가 모두 나에게 있고 죽을 때까지 재주를 다하면 얻지 못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본래 내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한 것이다.<sup>18)</sup>

‘富貴는 在天’이라는 생각과 부귀를 추구하는 방법에 대한 추구가 동시에 존재하는 현실을 직시한다. 창계의 말은 부귀의 추구를 추구하며

---

已, 將以補其不足者也。故聖賢之生於世也, 必汲汲以行道爲志, 以天下之治亂爲己任也, 於此兩章, 可見其自任之心也。”; 朴世堂, 『思辨錄』「公孫丑下」13章 “有以見自任之重自釋之寬。然所不豫者, 卒形於言語之外, 而不可謂無也, 則聖賢憂世之意, 其深矣哉。”  
18) 林泳, 『滄溪集』卷22, 「讀書箚錄-孟子」 “蓋命之一字, 便是勘斷貴賤貧富之公案。求之有道, 乃是中間, 又自更有曲折也。今人見貴富貧賤, 於自己身上, 利害親切, 便認爲在我者, 而見聖賢德業崇高, 以爲此非常人所及, 其視之不管如千萬里之遠, 此甚惑也。殊不思富貴貧賤, 雖切於吾身, 而實難以吾心任意取之, 則是在外而本非在我者也。仁義禮智, 雖蔽於物欲, 直似本無, 而一念悔悟, 無不在是, 終身竭才, 無不可得, 是在我而本非在外者也。”

인의예지를 실천하는 데는 무심했던 보통 사람들의 인식을 근원에서부터 각성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반성적 시각은 이 『독서차록』이 단순히 경전의 知的인 해석에 그치지 않고, 시대와 호흡하며 당시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실천의 지향이 내함된 고심어린 17세기 조선 유학자의 진지한 성찰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 5. 학문적 기초와 그 주변

창계는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온전히 실천해 낼 때 그것이 참된 학문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할 일은 오직 평소 책과 건문을 통하여 알게 된 의리를 익히고 궁구하여, 이것을 오늘날 내가 움직이고 응대하는 일상생활에 녹아들어 자리 잡게 하는 것이다. 存養을 독실하게 하여 사사로운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며, 점검을 면밀하게 하여 은미한 것도 빠뜨리지 않게 한다. 항상 性善의 뜻을 간직하여 잘못을 고치기에 반드시 힘을 다하며, 마음의 찌꺼기를 말끔히 씻어서 애초의 본성을 회복하며, 자신의 본분으로 응당 해야 할 일은 책을 펴서 읽지 않고도 행하는 것일 뿐이다.<sup>19)</sup>

창계의 학문은 건문한 의리를 일상생활에서 실천되는 것이다. 스스로 돌이켜 끊임없이 점검하여 아주 작은 일일까지 모두 적용하는 것이다. 性善의 뜻으로 개과천선하며, 수양을 통해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책으로 공부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도 자신의 본분으로 응당 할

19) 林泳, 『滄溪集』卷25, 「日錄-丙寅(1686)」“唯在溫習究極乎平日所知書冊見聞之義理, 融會湊泊於今日此身動靜應接之日用. 持養純篤, 不容於安排, 點檢密切, 不漏於隱細. 常存性善之意, 必盡矯治之力, 斷斷以消融查滓, 還復性初, 爲己分應行之事, 不待開卷讀書.”

일이라면 독실하게 실행하는 것이다. 이른바 그 스스로 목표한 대로 “학문은 다른 것이 없고 그 요체는 마땅히 해야 하는 모든 일을 번거로움을 견디며 애써 부지런히 하는 것”<sup>20)</sup>이다.

그의 이러한 공부는 철저한 주자학 텍스트에 대한 독서에서 그 기초를 세운 것이다.

병오(1666)년 여름에 이르러 『朱子大全』을 보고 마음이 감발되어 마침내 학문에 몸을 바쳐 종사할 생각을 품었으며, 중요한 곳을 암송하고 실체를 깊이 연구하면서, 낮밤으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며 급급함을 버리지 않았던 기간이 수개월이 넘고, 『주자대전』을 모두 읽고 나서부터 『대학』을 읽어서 일 년의 노력을 들이고 나니 자못 학문에 익숙하게 된 것 같았다. 그 동안에 『朱子語類』와 『性理大全』과 『二程全書』 및 우리나라 퇴계와 율곡의 글에 이르기까지를 함께 읽고, 또 『근사록』과 『소학』을 읽고 모두 암송하였으니, 이때가 내 나이 스무 살로 무신년(1668)이었다. 이때 義理의 체계와 학문의 뜻에 대해 그 줄거리를 거의 모두 대략 알았고, 그 중간에 또 간혹 깨달음이 깊고 신묘한 경우나 가진 뜻이 매우 좋았을 때가 있었으니, 만일 이것들에 나아가 계속 연마하고 精進하기를 쉬지 않았더라면, 내가 오늘날 어찌 이와 같이 되었겠는가! 애석하고 애석하다.<sup>21)</sup>

그러니까 막 발간된 『주자대전』을 접한 퇴계가 그러했듯 창계는 18세에 『주자대전』을 읽고 학문에 뜻을 세웠으며, 그 책의 중요한 내용을 읽고 암기하면서 스스로 각고의 노력을 했다. 그리고 다시 『대학』을 1년에

20) 林泳, 『滄溪集』卷26, 「日錄-癸酉(1693)」 “學問無他, 凡事之所當爲者, 耐煩勤苦, 乃爲要道.”

21) 앞의 글 “及至丙午夏間, 因看朱子大全, 意有感發, 遂有委身從事之計, 默誦要處, 潛究實體, 晝夜刻苦, 憧憧不舍者數月餘, 因得盡看大全, 自此去讀大學, 費了一年工夫, 頗似熟爛, 其間兼看語類, 性理大全, 二程全書, 以及東方退栗文字, 又讀近思小學, 皆成誦, 此時年方二十, 戊申歲也, 義理體段, 問學意思, 幾乎皆略識梗槩, 而其中亦或有曉解深妙處, 意思極好時, 若就此接續加工, 精進不息, 則今日豈如此乎, 惜哉惜哉.”

걸쳐 정밀하게 읽었으며, 그 사이에 『朱子語類』, 『性理大全』, 『二程全書』, 퇴계·율곡의 글과 『근사록』과 『소학』을 암송했다. 스무살 때 스스로 의리의 체계와 학문의 뜻에 대해 대략 알았다고 자부했으니 학문적 기초에 대한 확립은 상당히 일찍 완성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스스로의 각고의 학습은 후학에 대한 지도에서도 이어졌다.

그는 후생들에게 먼저 四書에서 구한 다음 詩·書·禮·易과 春秋의 순으로 학습할 것을 지도했으며, 북송과 남송을 거치며 완성된 주지학에 학문이 모두 구비되어 있으니 지금부터는 쉬지 말고 그것을 탐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사물들을 모두 살펴야 할 것이지만 온갖 이치는 모두 마음 속에 있다고 하여 주자학적 수양론을 강조하는 학문방법론을 실천하라고 타일렀다.<sup>22)</sup>

그러한 주자학적 학문 소양을 바탕으로 한 창계의 학문에 있어서의 궁극적 목표와 그 학문방법의 근거는 성현은 배워서 이를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었다. 그는 “성현은 반드시 배워서 이를 수 있다고 여겨서, 마음을 보존하고 이치를 탐구하기를 대상을 대할 때마다 잠시도 잊지 않는다면, 거의 근거할 바가 있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고 판단했다.<sup>23)</sup>

창계가 목표로 설정한 성현이 되는 길은 마음을 보존하여 이치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창계는 그 궁극의 방법이 『심경부주』에서 강조된 ‘敬’의 실천에 있다고 생각했다.

22) 林泳, 『滄溪集』卷2, 「示學者」 “門路先從四子求, 詩書禮易及春秋. 濂洛關閩俱有述, 自今探討不宜休 …… 其問物物皆當察, 萬理都融方寸中.”

23) 林泳, 『滄溪集』卷26, 「日錄-己巳(1689)」 “要在以聖賢爲必可學, 存心玩理, 隨所接而不容暫忘, 則庶有所據而可進矣.” 이러한 학문적 저변에 대한 검토는 함영대(2019) 참조.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할 때의 방법은 다른 것이 없으니, 오직 이치를 밝히면 사물이 저절로 뚜렷해져서, 기거동작에 절도가 있게 되고 마음이 바르게 될 것이다. 이치를 밝히는 방법 또한 다른 것이 없으니, 오직 마음을 바르게 하면 知覺이 늘 밝아서, 사려가 쉽게 통하고 이치가 밝게 될 것이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면서도 이치를 밝히지 않는 것은, 비유컨대 얇은 여울에 배를 띄우는 것과 같으니, 비록 자유자재로 오르내리기를 바라더라도 어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치를 밝히고자 하면서도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않는 것은, 비유컨대 눈을 감고 물건을 보는 것과 같으니, 비록 또렷이 살피기를 바라더라도 또한 어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格物과 致知 이후에 誠意와 正心이니, 치지를 하면서 敬을 하지 않는 자는 없었다.<sup>24)</sup>

창계는 正心과 致知가 매우 깊은 상관관계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곧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은 이치를 밝히는 데서 시작하고, 이치를 밝히려면 마음을 바르게 하여 知覺을 밝혀야 한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순환논법이다. 그러나 格物致知 이후의 誠意正心を 논하고 있으므로, 굳이 그 선후관계는 따지면 格物致知를 앞세운 것인데 그 올바른 격물치지의 원천을 正心, 곧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 설정한 것이 흥미롭다. 창계가 그러한 사유의 귀결이자 실천의 핵심을 敬으로 정한 것은 그런 점에서 주의 길게 보아야 한다. 敬은 正心할 수 있는 이상적인 마음가짐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창계는 敬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마음이 온전히 보존된 상태, 곧 정심의 지속을 고투에 가깝게 추구했다.

24) 林泳, 『滄溪集』卷26, 「日錄-丁卯(1687)」 “欲正心之道無他, 唯明理則物則自著, 動靜有節而心得其正矣, 明理之道亦無他, 唯正心則知覺常昭, 思慮易通而理可以明矣. 欲正心而不明理, 譬如浮船淺灘, 雖欲沿洄自在, 豈可得也. 欲明理而不正心, 譬如合眼觀物, 雖欲照察了然, 亦何可得也. 故格致而後誠正, 未有致知而不在敬者.”

학술에서의 공통된 병통은 원래 마음이 끊어지는 데에 있는데, 나는 천성이昏弱하여 이 병통이 더욱 심하다. 마음이 보존되어 있을 때는 理와 義의 온전한 체가 흡사 밝게 구비된 듯하고, 보고 듣고 먹고 숨 쉴 때에 천지와 서로 통하는 것을 느껴서 털끝만큼도 사사롭거나 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서 성현의 언행을 묵묵히 생각할 때는, 친절함을 깊이 느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고, 아직 할 수 없는 것이라도, 한번 떨쳐나서면 이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느꼈다. 그런데 잠시라도 끊어짐이 생기면, 이런 생각이 한꺼번에 없어지고, 모든 세속의 범상하고 편협하고 더러운 생각이 또 생기지 않는 것이 없어서, 세상의 한 가지 곤은 절개와 한 가지 뛰어난 행실이 있는 사람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게 된다. 이 병통이 없어지지 않으면, 마침내 형편없는 소인의 경지로 떨어질런지도 알 수 없고, 이 병통이 실제로 없어지면, 성현의 경지라 하더라도 역시 배워서 이를 수 있는 방도가 없지 않을 것이니, 나의 일생의 成敗는 단연코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리라!<sup>25)</sup>

보존된 마음을 지속하지 못하고 끊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학술의 공통된 병통인데 창계 자신이 昏弱하여 이렇게 하지 못하는 병폐가 있다는 고백은 매우 아프게 들린다. 보존되고 그렇지 않음이 현인이 되고 소인이 되는 것과 관련이 있으므로 창계는 이것을 일생의 성패가 달린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파악했다. 그러므로 그는 “처음 배움에 뜻을 두었을 때 이미 이 병통을 자각하여, 주자의 ‘이 마음과 이 이치는 원래 끊어짐과 이지러짐이 없다.’라는 말과 ‘하루 24시간 동안 항상 제대로 살펴야 한다.’라는 말 등을 깊이 음미하여 여기에 몸을 맡기고 마음에 새기고자

25) 林泳, 『滄溪集』卷26, 「日錄-散錄」 “學術通患, 固在於間斷, 余性昏弱, 此患尤甚. 當其存在時, 理義全體, 宛若明備, 視聽食息, 覺與天地相通, 不容有纖微私吝意. 就中默念聖賢言行, 甚覺親切, 或有行處便是之意, 其未能處, 亦覺有一撥可至之機矣. 纔有間斷, 一敗塗地, 凡世俗庸常偏狹汗濁之念, 又無所不有, 視世之有一節一行之人, 不及又遠矣. 此患不除, 遂陷入無狀小人之域, 亦不可知, 此患果除, 雖聖賢亦不無學以可至之道, 余之一生成敗, 斷在此矣.”

하였으며,<sup>26)</sup> 그 뒤에 張子の ‘三月不違와 日月至焉의 내외와 빈주의 구분을 알아 여기에 힘쓰고 정진하여 그치지 않게 해야 하며, 이것을 지난 단계는 거의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말을 보고는 감발됨이 더욱 깊어졌다.”고 토로했다.

자신의 약점을 막는 방법으로 “오직 이 마음의 끊어짐이 늘 무슨 일 때문에 생기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대하고 자주 해가 되는 일에 나아가 그 잘못된 점을 찾아내어 힘써 바로잡아야 하며, 비록 지금 당장은 그런 일이 없더라도 또한 미리 다스려야 한다”고 지목했다. 창계는 그것이 바로 ‘克己의 일’이라고 생각했다.<sup>27)</sup> 이처럼 그의 사상적 고투와 실천은 매우 고되고 값진 것이었다.

## 6. 남는 문제

실질과 절목을 향하는 창계 임영의 학자적 시선은 임진왜란(1592~

26) 창계는 18세에 『일록』을 작성하고 나서부터 모든 일상의 거취, 말과 행동을 기록했고, 사소하거나 미묘한 마음의 변화 등 글로 기록하기 어려운 것은 따로 날짜마다 동그라미, 점, 획을 긋는 방법으로 내일 자신의 행위를 점검했으며, 그 방법을 수시로 개정하며 엄밀하게 자신을 단속하였다. (권25, 『日錄-丁未(1667)』, “余既爲日錄, 凡日用動靜語言事爲, 皆記之. 又以小事不足煩記錄, 且心之微妙, 書不能文. 故別爲日旁圈點畫例, 每日點檢其所爲. 於心無不慊則圈, 無不欺則畫, 始慊終欺則圈而畫, 始欺終慊則畫而圈, 欺慊雜則點, 凡圈或大或小, 點與畫皆然, 欺慊有大小也. …… 又改圈點例, 比向者加嚴密.”

27) 앞의 글, “初向學時, 已自覺此病. 深味朱子此心此理, 元無間斷虧欠. 及十二時中, 常切照管等語, 而欲委身佩服. 後來見張子要當知三月不違與日月至焉, 內外賓主之辨, 勉勉循循而不能已, 過此幾非在我者之說, 感發尤深. 終是此患尙存, 自察病根, 固是昏弱之致, 亦緣在家汨沒, 聞見應接, 無非俗事, 故根本未立, 易得流徇而然也. 人之處勢雖各異, 亦無不可爲學之處, 要在做得透徹耳, 問者欲專就一事上習專一, 以頭容直爲法, 自是硬法, 亦不能持久, 要之去此患十分甚難. 當欲去此患之時, 此心固存, 非不專也. 及將間斷, 每是忘忽之頃, 并與欲去病之心而亡之, 雖欲預爲之法, 亦無奈何. 惟當深思此心間斷, 常因何事, 就其最重而數爲害者, 究見罪過, 力加矯治, 雖目下所無之事, 亦可預治, 此克己之事也.”

1597), 정묘호란(1627), 병자호란(1636)으로 이어지는 당대 상황에 비추어 정밀하게 반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기에 만회 권득기, 포저 조익, 서계 박세당 등은 맹자의 해석이라는 구체적인 국면에서 일반적인 관념론에 머무르지 않고 어느 정도는 논리의 진전을 이루었는데 창계의 경우는 논리에 그치지 않고 마음의 도야라고 하는 좀 더 진전된 측면으로 나아간다. 이는 상대적으로 텍스트의 교조화에 좀 더 치력했던 잠야 박지계나 우암 송시열의 경로와는 변별되는 것이다.

창계의 내면적 성찰의 두 경향을 살펴보면 理의 경로와 氣의 경로가 다리다. 이를테면 원리, 구조의 재확인과 강조의 일면과 실용과 효용, 효과의 중시 측면으로의 진전이 있다. 창계의 경우 心法과 事功의 구분 법과 그 융합적 지향으로서의 타개책을 모색하고 있는 국면을 보여주는 데 이는 조선 주자학의 진행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지점이다.

### 〈참고문헌〉

- 임 영, 『참계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4.  
 정동화 외, 『국역창계집』, 한국고전번역원, 2015.  
 유형원 저, 임형택 외 편역, 『반계유고』, 창비, 2017.
- 김태년(2008), 「論思辨錄辨 의 浩然之氣論에 대한 고찰」, 『기전문화연구』 34, 인천교육대학 기전문화연구소.  
 문석윤(2009), 「조선 후기 성리학에서 맹자 호연장 논란과 그 의의」, 『한국문화』 47,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우경섭(2008), 「우암 송시열의 호연지기론」, 『동서철학연구』 48, 한국동서철학회.  
 이영호(2020), 「참계 임영의 因文入道論 고찰」, 『민족문화』 56, 한국고전번역원  
 조정은(2019), 「창계 임영의 개인 수양서로서의 『논어』 읽기」, 『한국실학연구』

37. 한국실학학회.

채희도(2016), 「율곡 공부론이해의 단초로서 호연지기론 연구」, 『율곡사상연구』 32, 율곡연구원.

함영대(2017), 「만회 권득기의 학술정신과 맹자참의」, 『한국사상사학』 55, 한국사상사학회; 함영대(2008), 「포저 조익의 학문관과 경학」, 『동방한문학』 34, 동방한문학회.

\_\_\_\_\_ (2019), 「창계 임영의 내면적 성찰과 경학 - 『일록』과 『독서차록-맹자』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7, 한국실학학회.

\_\_\_\_\_ (2022), 「부부는 인류의 시작이고 만복의 근원이다」, 『퇴계학 아카데미』 봄강연 3 (<https://www.youtube.com/watch?v=TuzKrnX2Xfo>)

A Shift of Interest to the Inner Side of Gyeonghak  
in Joseon in the 17<sup>th</sup> Century:  
In the Case of Lim Yeong (1649~1696) in Changye

Ham, Young-dae \*

This This thesis examines the interests of Chang-gye Imyeong's commentary on the scriptures. It is an attempt to examine the transition of interests of Confucian scholars in Joseon in the 17<sup>th</sup> century and its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Confucian studies. Im Yeong of Changye is a Joseon Neo-Confucianist who is noteworthy in the 17<sup>th</sup> century for his sincerity in practice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ory.

As a result of the review, he deepened his study of Neo-Confucianism and tried to practice it earnestly in everyday life, which was the practical settlement of his basic attitude of life and serious academic efforts. This inclination of academic criticality, which emphasizes inner awakening and practice, has a characteristic of the times that is well displayed in the 17<sup>th</sup> century in the case of Manhoe Kwon Deuk-gi and Pojeo Jo-ik. It is presumed that the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political upheaval and Neo-Confucianism experienced during the reigns of Gwanhaegun and King Injo became factors that further deepened this academic direction.

However, the most important variable is also judged to be due to the deepening of the self-consciousness of the individual commentator. In this article, it was reviewed focusing on the aspect of the 17<sup>th</sup> century Joseon scholars' academic awareness of the problem being converted to the inner side.

Chang-gye Imyeong's scholarly gaze, conscious of substance and cut-off,

---

\* Professo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E-mail: ydham@gnu.ac.kr

needs to be ruminated precisely in light of the contemporary situation leading to the Imjin War (1592~1597), the Jeongmyo Horan (1627), and the Byeongja Horan (1636). During this period, Manhoe Kwon Deuk-gi, Poje Jo-ik, and Seogye Park Se-dang did not stop at general ideology in interpreting the scriptures, but made logical progress in specific aspects. showed successful results. This is different from the paths of Janya Park Ji-gye and Uam Song Si-yeol, who were relatively more devoted to the dogmatization of the text.

In the case of Chang-gye's introspection, there is progress toward the reconfirmation and emphasis of structure and the emphasis on practicality, utility, and effectiveness. In the case of Changgye, it shows the way to distinguish between Simbeopsimbeop and Sagongsajik, and the phase in which a breakthrough is sought as a fusion goal, which is an important point that cannot be overlooked in the progress of Neo-Confucianism in Joseon.

### **Key Words**

Joseon in the 17<sup>th</sup> century, Chang-gye Imyeong, inward inclination, commentator's attitude, simbeop and boatman

|  |
|--|
| 논문접수일: 2023. 5. 21, 심사완료일: 2023. 6. 9, 게재확정일: 2023. 6. 30. |
|--|

